천주교 몬트리올 한국 순교 성인 성당

Mission Saints Martyrs Coréens

(Korean Roman Catholic Church in Montreal)

2461 Rue Saint-Jacques, Montreal, QC H3J 1H8
TEL 514-989-1033/ FAX 514-989-2382
E-mail : montrealkcmc@gmail.com/ 다음카페 "몬트리올 한국순교성인성당"

가해 제 1923 호 (2026. 6. 7)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전례 안내

주일미사	오전10시30분
(매월 마지막 주일 청소년 전례)	
평일미사	오전10시(수금토)
	오후 7시 (화 목)
토요특전(청년)	오후 5시
고해성사	미사 전
성 시 간	매주(목) 미사후
봉 성 체	사전 신청
혼배성사	1년전 신부님 면담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11시
	(사전신청 필수)

▣ 주임사제 및 사목회장

주임사제 최동철(다미안)
☎ 514-424-6213
sstminmontreal@gmail.com
사목회장 김광수(바오로)
연령회장 김 도날드
☎ 514-804-9094

▣ 사무실 운영시간

주 일 (일) 09:30~13:30
평 일 (화~금) 09:00~15:30
사무장 김성한(안드레아)
☎ 514-989-1033

** 청소년 성가 악보 주보 4,5면 참조*

성가 ♪	성체 성혈 대축일, 6/7
입 당	211(어린이성가)
봉 헌	138
성 체	167, 162
파 견	501

▣ 오늘의 전례

(청소년 전례/첫영성체 예식)

제 1 독서 신명기 8,2-3.14ㄴ-16ㄱ

화 답 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ㄱㄴ(◎ 12ㄱ)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0,16-17

부속가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 요한 6,51-58

전례봉사자	성체 성혈 대축일, 6/7	연중 제11주일, 6/14
해설	이지안	정현주
독서	윤우진, 이시원	김지수, 고운정
시종복사	김태오, 홍서희	김준호, 김현석(S)
초/분향복사	김수하, 김민승	최정욱
제물봉헌	박정권, 남민경	첫 영성체 가족
성체분배	황성연	김평집, 오상근
친교	웨스트 아일랜드	첫 영성체 가족

▣ 우리의 정성

☞ 미사 지향

일자	구분	지 향	봉헌자
5/28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이익열 이사벨라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위령	이영민 마르코 영혼을 위하여	정화자 현영 가족
"	위령	안언분 영혼을 위하여	이길수 토마스 가정
"	위령	유화선 데레사 영혼을 위하여	김혜란
5/29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임명빈 스테파노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위령	김형라 마리아 영혼을 위하여	이윤희
"	위령	연옥 영혼을 위하여	조영해
"	생	제대회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익명
5/30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위령	노콜린의 영혼을 위하여	노재일 다미아노 가족
"	생	첫 영성체 아이들과 봉사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정수희 크리스티나
"	생	유광호 안드레아를 위하여	이영애 릿다
"	생	이수빈 가브리엘 유정은 가정을 위하여	이영애 릿다
6/2	위령	이화숙 마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경성 가족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임명빈 스테파노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생	김희성 에스텔과 가족을 위하여	조 아녜스
6/3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생	명도회원들을 위하여	명도회

☞ 우리 본당 살림은 우리 힘으로

	5/24(일)	5/31(일)	누 계
주일헌금	1,352.00	1,323.00	29,884.55
교무금	1,040.00	990.00	48,161.00
감사헌금	540.00	310.00	9,405.00

▶ 교무금(10명) 5/31 (일)

- 김만달, 김세호, 김학창, 박종호J, 배수민, 엄기인, 유봉성, 이 선, 조영해, 황성연

▶ 감사헌금 5/31 (일)

- 김광수, 김교중, 김석만, 김학창, 김형석, 박종호J, 송병태, 심동철, 심영섭, 이우중, 정진태, 최성임

☞ 묵주기도 (2027년 성모의 밤 봉헌)

지난주 누계	금주	금주 누계
0 단	1,780 단	1,780 단

교우 환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노후순/멜라니아, 이옥주/마리아, 최은숙/멜라니아, 전영길/아브라함
정영섭/세바스찬, 김용옥/데레사, 송재훈/루카, 조필구/안토니오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6/10) 황지우 올리비아

▣ 본당 소식

	행사	모임
이번주	● 첫 영성체	사목회
다음주		꾸리아 구역장 회의

▶ 2026년 첫 영성체 예식

-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6명의 아이들이 3개월간의 교육을 끝으로 오늘 첫 영성체를 받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후 어린이들을 위한 축하 파티가 만남의 방에서 진행되오니 가족 분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 첫 영성체 대상자 : 박시현 미카엘, 박지유 릴리안, 윌리엄 리 브라운 윌리엄, 이시원 레오, 박서인 엘리자베스, 윤우진 프란치스코

▶ 축하합니다.

- 5/31(일) 자비의 모후 Pr. 이종완 케빈 형제, 홍혜선 젬마 자매, 조혜정 엠마누엘라 자매가 레지오 선서를 하였습니다.
- 성모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야외미사 안내

- 미사 일시 및 장소: 6/21(일) 오전 9시30분 대성전
- 식사 장소: 앙그리뇽 공원
- 이번 야외미사는 9시 30분에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앙그리뇽 파크로 이동하여 피크닉을 진행합니다.

▶ 다음주 평일 미사 안내

- 본당 사제 휴가로 6/9(화)~13(토)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캠프 안내

- 주일학교 중고등부, 초등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여름캠프를 다녀옵니다.
- 일시: 6/26(금) 오전 10시 성당 집합 ~ 28 (일) 오후 12시 30분 도착
- 장소: 1631 Rang du Bord de l'Eau, Municipalité de paroisse de Sainte-Anne-de-Sabrevois, QC J0J 2G0
- 참가비: 100$
- 문의: 조현우 루카 (438-865-3022)
- 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독려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교사를 통해 배포되는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한 컷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라 말하는 우리는 누구보다 귀한 손님을 매 미사마다 맞이한다.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손님.
우리는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을까.
나의 맘을 청소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꾸며 보고, 그 손님에게 함께 나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까.

- 조재형 안드레아 신부(수원교구 궁리본당 주임)

[2026년 교황님 기도 지향] 6월 :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가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친교실 청소

6월	엔디지

◆ 미사 참여신자 (5/26 ~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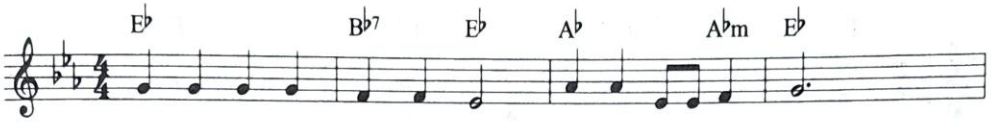
평 일	(화) 11	(수) 9	(목) 23	(금) 8	(토) 17	성모의 밤 93
주 일	교중	216		합계	377	

주보공지 원고 마감 : 매주 수요일 낮 12시
주보공지 이메일 : montrealkcmc@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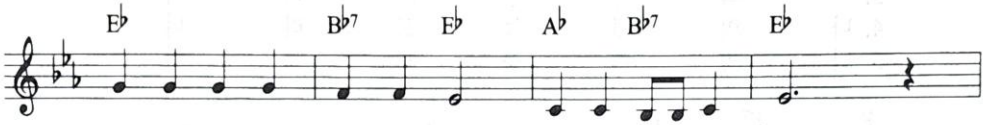
봉헌

주여 나의 몸과 맘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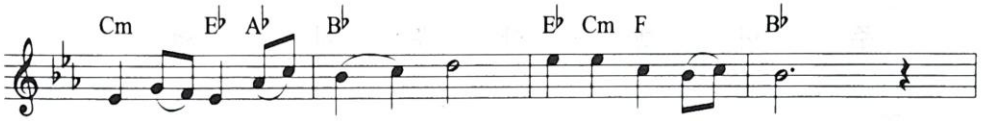
주재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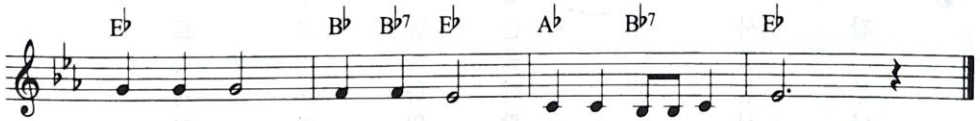
주 여 나 의 몸 과 맘 모 두 드리오 니



주 여 나 의 몸 과 맘 모 두 받으소 서



1. 세 상 - 풍 파 - 중 - 에 헤 매 던 양 - 들
2. 어 둠 - 속 에 - 빛 - 을 그 리 던 양 - 들
3. 주 님 - 말 씀 - 따 - 라 이 웃 을 위 -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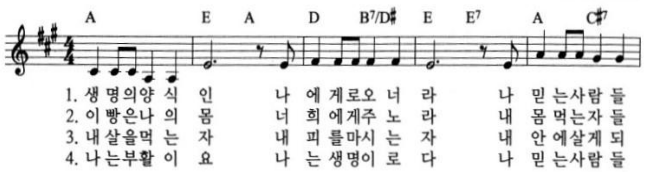


주 님 의 품 안 에 받 아 주옵소 서
당 신 의 은 총 에 감 사 드립니 다
우 리 의 한 평 생 살 게 하옵소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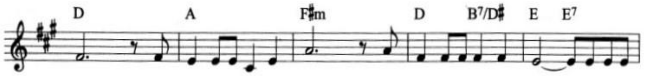
167 생명의 양식

성체

M. Suzanne Too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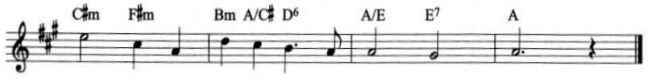


1. 생 명의양 식 인 나 에 게로오 너 라 나 믿 는사람 들
2. 이 빵은나 의 몸 너 희 에게주 노 라 내 몸 먹는자 들
3. 내 살을먹 는 자 내 피를마시 는 자 내 안 에살게 되
4. 나 는부활 이 요 나 는 생명이 로 다 나 믿 는사람 들



은 목 마 르지않 으 며 내 안 에살게 되 리 - 나그를
은 죽 음 당하지 않 고 영 원 생명얻 으 리
리 끝 없 는행복 속 에 평 화 를누리 리 라
은 죽 음 이오더 라 도 영 원 히 - 살 리 라

사 랑 하 며 - 나 그 를 살 게 하 리 - 나 그 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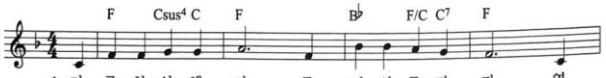


영 원 히 영 원 히 살 게 하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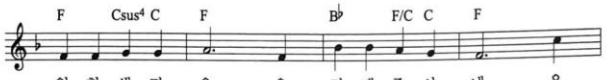
162 생명의 성체여

성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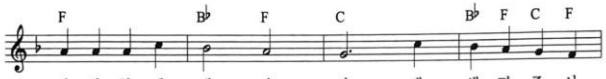
John David Ed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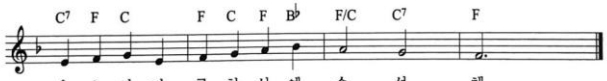
1. 거 룩 한 성 체 여 주 님 의 몸 과 피 영
2. 거 룩 한 성 체 여 신 비 의 성 사 여 주
3. 거 룩 한 성 체 여 기 쁨 의 샘 이 여 평
4. 거 룩 한 성 체 여 구 원 의 길 이 여 희



원 한 생 명 을 우 리 게 주 시 네 우
예 수 우 리 와 한 몸 을 이 루 네 우
화 와 안 식 을 우 리 게 주 소 서 우
망 과 사 랑 을 우 리 게 주 소 서 우



리 와 함 께 계 시 어 새 생 명 주 시
리 의 형 제 만 나 서 주 안 에 하 나
리 의 삶 을 이 웃 과 나 누 게 하 시
리 도 주 님 본 받 아 구 원 의 길 로



옵 소 서 거 룩 하 신 예 수 성 체
되 리 라 거 룩 하 신 예 수 성 체
옵 소 서 거 룩 하 신 예 수 성 체
가 리 다 거 룩 하 신 예 수 성 체

입당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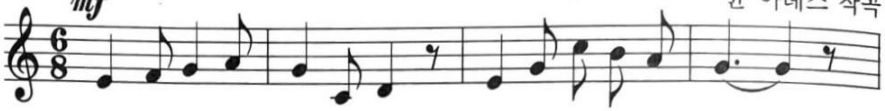
211 좋으신 분 우리 하느님

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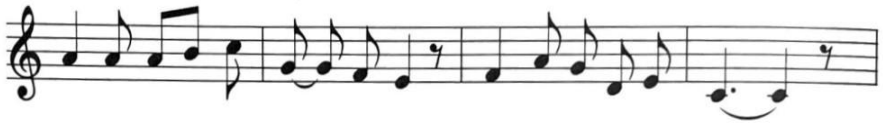
김 베르나뎃다 작사
윤 아네스 작곡

가볍고 경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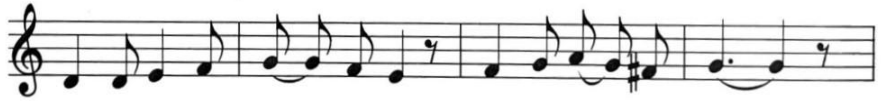
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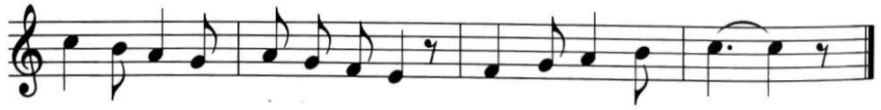
1. 하 느님은 세 상 을 좋 게 만드시 고
2. 좋 으신분 하 느 님 우 리 아 - 버 지
3. 세 상안 에 계 시 는 우 리 하 - 느 님
4. 감 사해 요 하 느 님 주 신 모 든 선 물



꽃 과 나 - 무 이 름 지 어 선 물 로 주 셨 네
달 과 별 - 을 보 면 서 찬 미 노 래 해 요
땅 과 하 - 늘 어 디 나 살 고 계 시 지 요
바 다 같 - 이 넓 으 신 마 음 본 받 아 요



우 리 들 을 사 랑 하 신 하 느 님 - 말 씀
우 리 위 해 지 어 내 신 아 름 다 운 세 상
우 리 마 음 안 에 도 항 상 계 신 주 님
우 리 가 진 모 든 것 함 께 나 누 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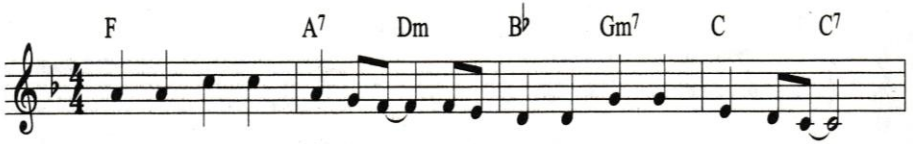
서 로 서 로 도 우 면 서 살 라 하 시 네
여 기 함 께 살 고 파 요 하 느 님 나 라
사 랑 하 는 친 구 들 과 기 쁨 나 눠 요
사 랑 이 신 하 느 님 을 닮 아 가 지 요

파견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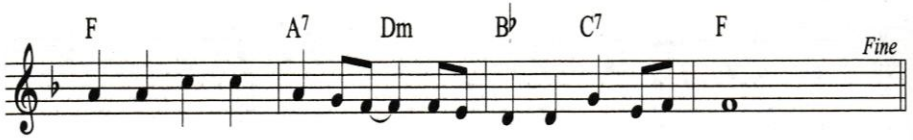
501 주는 우리의 기쁨

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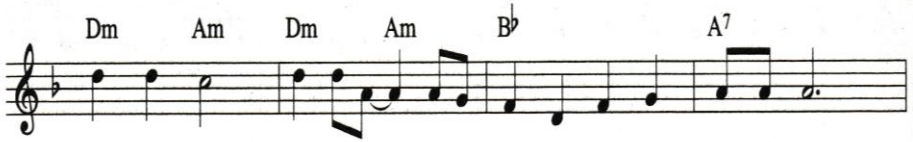
S. Syk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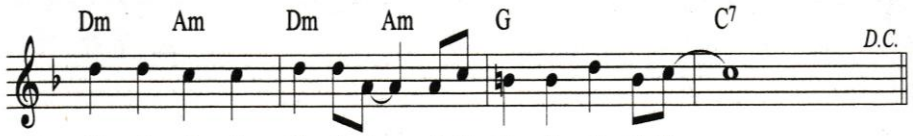
주 는 우 리 의 기쁨 - 우리 생 명 우 리 의 희망 -



주 여 당 신 없 이는 - 우리 아 무 것 아니 리



1. 때 때 로 우 리삶 - 차갑 고 어 둔 밤 이 지 만
2. 굶 주 린 세 상에 - 양식 이 되 어 오 셨 으 며



주 여 당 신 벗 되어 - 당신 앞 에 나 가리 -
이 풍 성 한 잔 치에 - 우리 를 초 대 하네 -

[교회상식 더하기] 왜 성혈은 모시지 않을까?

가톨릭신문 2026-06-07 제 3494호 20면

"성체 한 조각에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계신다"

성체와 성혈 안에는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재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담겨 계신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사 중 성체를 거양하는 모습.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우리가 성찬의 전례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문득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두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정작 미사 때 우리는 성체만 모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성혈은 왜 모시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체와 성혈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재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담겨 계신다"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74항)

비록 우리의 눈에는 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이고, 또 모든 지식과 감각을 동원해도 포도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작은 성체의 한 조각이나 성혈 한 방울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체나 성혈 중 어느 한 가지 형상만을 모시더라도 "그리스도를 참된 성사로, 온전하게, 그리고 모두 다 모시는 것"이고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얻는 데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282항)

트리엔트공의회 교부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어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내어주시는 당신의 몸과 피에 관해 설명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의 빵"(6,48)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교부들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6,53)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6,51)이라고 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단형 영성체로도 구원에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트리엔트공의회 제21회기 「영성체에 관한 교리와 법규들」 제1장)

물론 단형 영성체로도 충분하지만, 역시 양형 영성체가 성찬 잔치의 표지를 한층 더 완전하게 드러냅니다. 양형 영성체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 주님의 피로 맺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이 표현되며, 성찬 잔치와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어질 종말 잔치의 관계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281항)

그래서 세례 후 첫영성체 등 전례서에 규정된 경우나 피정·영성 모임·사목 모임 등의 경우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룩한 빵과 포도주를 모독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합니다.(교황청 경신성사부 「구원의 성사」 101항) 아무래도 성체와 달리 성혈은 분배할 때 엎지르거나 흘릴 염려가 크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미사 때 성체의 수가 부족할 때 신부님께서 성체를 작게 쪼개서 나눠주시기도 하지요. 우리 눈에는 너무도 작은 조각이지만, 온전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신비를 기억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중)

이승훈 기자

✚ 예수 성심 성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성심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u>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u>
<u>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u>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간 모임			
주일	시간	단체명	
일요일	9시	레지오	창조주의 모후 Pr.
	9시		샛별 Pr.
	9시		자비의 모후 Pr.
	9시		희망의 모후 Pr.
일요일	9-10시	주일학교	교리실
일요일	12시	첫 영성체 교리	3월 시작
일요일	미사후	성가대 연습	대성전

월간 모임		
시간	모임	
첫째주	(수)	명도회(10:30 미사후)
	(일)	사목회, 성가대 월례회
둘째주	(일)	꾸리아(주일미사 후) 구역장 회의 청소년분과 성모회
셋째주	(일)	자부모회
넷째주	(일)	연령회(주일미사 후)

한국식품 MARCHÉ KOREA
김병호 이레네오
(514) 487-1672
6170 Sherbrooke W.
marchekorea.com

서정협 유스티노
Courtier Immobilier
Groupe Sutton – Sur l'Ile Inc
주택/상가/렌트 종합 부동산
Tel) 514-244-0751
jsuh@sutton.com

캐나다 전지역 유학상담
[고고 몬트리올]
카톡아이디 : GOGOMONTREAL
www.gogomontreal.com
514-473-1311

GLOBAL TAX SERVICES
비즈니스 컨설팅 & 법인설립
개인 세금신고 & 양육비 신청
www.globaltax.ca
514-225-7441
gtsmontreal@globaltax.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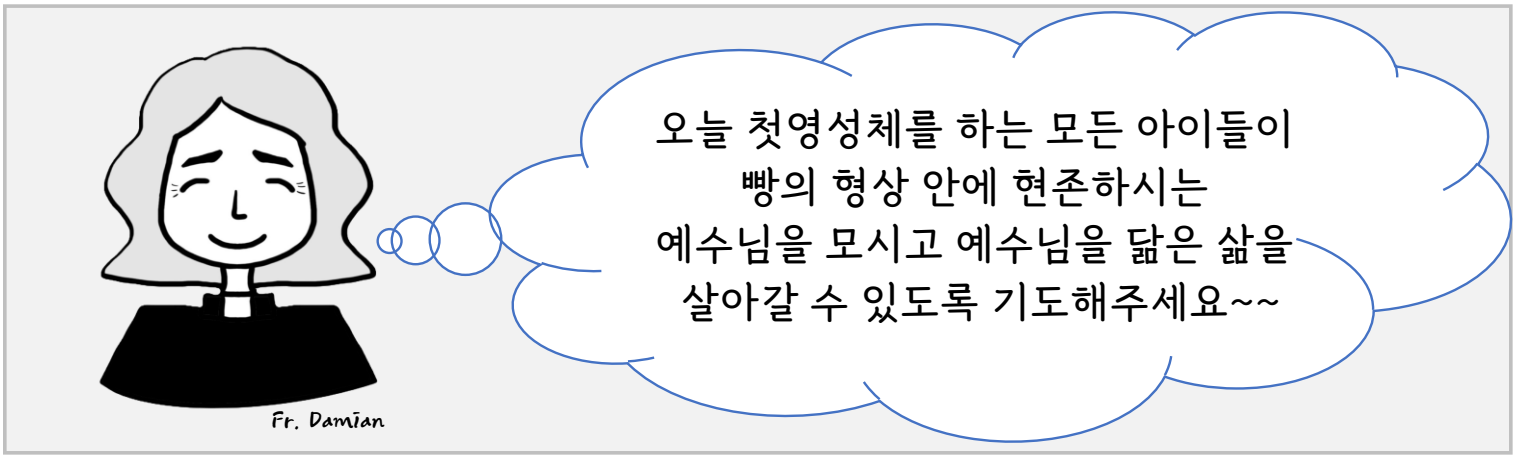
Peter Park
Teaching Professional
Ingenieur Allemand
MEADOWBROOK
8370 Cote St. Luc Road
Tel:(514) 433-0223
Montreal/Longueuil/Brossard

팡팡에서 당신과의
소중한 컷
'인생네컷'
1226 Mackay St.
(514) 938-8886

R&K Consulting
캐나다 유학/취업/이민
권민 보나 (Kate Kwon)
퀘벡/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상담 신청]
www.Rnk-consulting.com
카톡 검색 : 캐나다 이민 R&K
514-979-0830

허지연 한국 변호사
캐나다 (416) 518-0595
한국 070-4458-4645
lawyerjiyeonhur@naver.com
법무법인 시우
한국 부동산 매매 / 상속 / 민형사

<주보 광고 모집>
√ 주보 광고 연중 신청
√ 운영위원 이영애 릿다
(514-298-8434)
√ 사무실 (514-989-1033)

<레지오 단원 모집>
√ 레지오 단원 연중 모집
√ 꾸리아단장 이제순 아네스
(514-824-4812)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
교리교육을 위해 봉사해 주실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 대상: 견진을 받은 만18세 이상 신자
√ 문의: 주일학교 교장 함소정 노엘라 (514-625-6573)